

202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29.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3	1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8	-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8	-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한 주간 기업들의 희소식과 악재를 아주 쉽고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내용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한가지 옥에 티라면 기자님의 기사 전달 위치가 이슈에 따라 계속 좌우로 이동을 하다보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업기상도라는 타이틀답게 기상뉴스 컵셉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주제가 경제뉴스다 보니 이동 동선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신선함과 정확한 경제뉴스 전달의 두마라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으실걸로 판단합니다.(허인순 위원)</p>	<p>기업기상도' 진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희 나름은 역동감 내지는 생동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요. 집중도를 위해서 좌우 움직임을 줄였습니다.</p> <p><24.2월 조치></p>	<p>'24.1월</p>
<p>보도</p>	<p>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의 테마별 카테고리 분류가 시청자들이 영상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 분류된 것 같다. 특히 CES 2024현장 카테고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라스베이거스 소비자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뉴스와 영상을 모아 놓아 전시회에 직접관람을 하지 않아도 현장감 있는 느낌을 수 있게 하였다. CES 2024현장 영상들을 보면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과 미래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청률을 높이는 구성이라 판단한다. 차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들을 별도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서신석 위원)</p>	<p>카테고리 생성은 무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현안 카테고리는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ES에 이어서 미국 대선을 지금 하고 있고 2024 총선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24.2월 조치></p>	<p>'24.1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전)한국경제협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현상 보도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각각의 현상>(나무)뿐 아니라 <현상이 일어난 배경과 구조,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법>(숲)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종합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해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	저희가 끝장 토론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뉴스 형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와이드하게 토론을 기획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이 의대 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필수 의료라든가 지역 의료에서 이미 공백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사 숫자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의사 정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논의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공론장에서 적극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보도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이라도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손영준 위원장)</p>	<p>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의대의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기초 하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이 수반돼야 될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육 문제라든가 수가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의사들의 요구라든가 의견들도 좀 반영해서 정부와 의사들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저희가 '뉴스프리즘'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생각입니다.</p>			
<p>보도</p>	<p>처음에 시작됐을 때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의사 수가 몇 명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 수의 필수 진료 의료 분야 의사 수가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런 수치가 아니라 정부에서 1년에 2천 명, 5년 동안 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게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고 2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680명 이렇게 나오면 뭔가 좀 조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아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수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서울로 많이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추가 인원 교육 환경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의료계가 지금 팩트는 팩트대로 이렇게 좀 균</p>	<p>저희는 의대 증원의 방향이 맞다고 해서 의사들의 이해라든가 의견을 소홀히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 부분은 충실히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직군이 자기들의 이해와 기득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는 건 직무의 공익성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어나갈 것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형 잡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다 보니까 이런 수단들이 적절한지 조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전공 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로 복귀했다 30%로 복귀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흑색 선전이 되지 않도록 이제 언론사에서 는 조금 더 이런 수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자료화면 오사용, 2월 1일 '뉴스1번 지'에서 서울 지역구 동작을 여론조사 자료화면에 현역인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리뷰해주시면 좋겠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 자료화면 오사용 부분은 좀 창피한데요. 사실은 제가 즉각 발견을 하고 조치(사과방송, 인터넷송고분 수정)는 했습니다마는 뉴스 전문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뉴스1번 지'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저희 구성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		
보도	[현장잇슈] 갤럭시S24 통역기 들고 명동 거리 나갔습니다..."꽤 쓸 만한데 이거?",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Galaxy S24는 처음으로 AI가 내장된 휴대전화죠. 별도의 앱 없이 오프라인에서도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미리 살짝 제공받	통신 제품들, 특히 삼성전자하고 애플에서 내놓는 단말기, 워치 이런 것들은 특정회사의 제품일 수도 있지만, 워낙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아이템이라서 저희가 다룰 때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제품 출시 행사할 때 그냥 삼성전자 갤럭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아 명동 거리로 들고 나가봤습니다. 과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지 영어, 말레이어, 일본어, 중국어로 외국 관광객들과 실제 인터뷰하며 바로 통.번역을 확인해보는 내용이라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하며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기획이었는데, 일본어 통.번역 시 제모를 탈모로 번역하는 해프닝이 있어 상품 광고해준다는 오해는 살짝 피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을 공영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할 듯 보입니다.(허인순 위원)	애플 다 노출시키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간접 광고라는 지적들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신제품 출시행사 하면 애플이라든가 다른 회사 신제품이나 신제품 출시 일정 같이 묶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갤럭시 S24 '현장잇슈' 코너는 TV수상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용으로 만든 코너다 보니까 약간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관심은 있고 클릭수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용으로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줄여가면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도	[핫클릭]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보상 하고 싶어" 外, 희대의 사기꾼 정청조 재판 관련 소식과, 무술유단자 경찰관의 지구대 침입자 제압 기사 보도 후 한국 출신으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기 구 가수의 영국 '브릿 어워즈' 후보에 오른 노래 '잇 고스 라이크) 나나나'를 소개하며 아나운서가 노래와 함께 율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신선해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허인순 위원)	'핫클릭' 코너는 강다운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구요. '핫클릭'이라는 코너가 아침에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무거운 뉴스 일변도에서 시청자들의 아침 기분을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버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 카테고리 '제보'의 '제보영상' 코너에 2월에만 8개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 관련 사항을 보면 : 제목, 영상, 한 줄의 제보 영상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 영상 또한 소리가 나지 않아 제보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영상 제보자들의 성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 온라인 쪽에 대한 신경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콘텐츠 조금 더 만드는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 영상을 그 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의와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제보자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담당 기자를 통한 제보자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에 제보영상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내용을 작성하여 제보 영상과 기사내용을 함께 올리는 것이 제보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송뉴스라고 생각한다. (서신석 위원)	후에 반영한 리포트라든가 단신이라든가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면 낫겠죠. 조금씩 인력 사정도 나아지고 있어서 전체를 다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도	특히 2월 07일 “역대급 의대 증원에 의협 파업 예고...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뉴스포커스 방송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일본의 의료수용 증가 문제로 의대정원을 증원한 추이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줌으로써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과 근무의사 수 비교는 국내 필수의료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확연히 구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는 꾸준한 기획방송을 통해서 보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서신석 위원)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됐던 사안입니다.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의 사례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어 일본 출장을 통한 기획물을 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을 통해 고령화 시대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필수 의료 문제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의대 증원 현안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기획을 통해 시청자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1월 31일 뉴스프라임에서 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세대출 갈아타기 쉽게 하는 방법, 신청 대상, 득실 등등을 앵커와 질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출연한 전문가의 깔끔한 설명과 해설로 청취하는 데 쉽고, 편안하였습니다. 다만, 초청 전문가의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서민층의 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전문가의 대답을 통해서 결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지적하신 그 날짜별 흐름을 보면 약간 좀 그렇게 일조를 한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애초에 기획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시청자들한테 유리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대출을 조장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 전망으로 마무리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월 4일 뉴스 10에서 우려했던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문가의 상세한 방법과 소개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갈아타기 대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에서는 좀 더 뉴스 후 서민 생활에 미칠 여파까지 고려해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뉴스센터 13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한 달 만에 4조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뉴스에서 상세하게 보도하는 내용이 오히려 전세대출 갈아타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건기 위원)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나만 지금 전세 대출을 안 갈아타고 있구나 남들은 다 낮은 금리로 가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너도 나도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런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특히 전문가 대담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질문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2.13일 뉴스프라임에서 들개 출몰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은 물론, 유기견의 문제까지 20여 분간 집중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와 들개를 다루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등 사회적 문제와 견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특히, 이웅종 교수님의 들개에 대한 대처법 등은 시청자가 잘 참고하기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들개를 포획, 입양 또는 안락사 등 사회성 교육 등을 통해 반려견화 등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려견이 유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적절한 보도였습니다.(강건기 위원)	들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들개를 만났을 때 안전한 대처방법 같은 것도 시청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 소개하겠습니다.	○		
보도	양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강조하는 내용에 배	저희가 인터뷰를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드 파더스 운영자 구분장 대표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 대표가 해당 보도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정책이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가 연관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드 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인정된 이후 미투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 역시 인터넷 등에 상대방의 신상을 기재하여 피해사실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진한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배드 파더스' 운영자 보다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조금 더 성의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 기자가 조금 사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드 파더스'의 미투 캠페인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덧붙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포스텍을 제시했는데, 포스텍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특수한 사례이고, 대학 자체 혁신사례로 미네르바대학을 제시했는데, 미네르바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 사례로 대학 폐교에 대한 혁신노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사례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선택적 육성과 폐교가 불가피한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기업의 연수원으로 유치한다든지,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교육의 장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지방대의 폐교, 아울러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하나의 단초가 될것입니다.(박화선 위원)	포스텍이 지역 대학의 일반적인 성공 내지 차별화 사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포스텍은 처음부터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반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에서 신규 진입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생존방안으로 가야 할 길로 포스텍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피부에 와닿을 사례를 구해서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현장잇슈] 갤럭시S24 통역기 들고 명동 거리 나갔습니다..."꽤 쓸 만한 데 이거?" (1/24), 최근 국내 기업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의 'AI 통·번역 기능'에 대해 실제 유용할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현장잇슈'에서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지 알아보기 위해 관광 명소인 '명동'을 찾아 직접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도 앱을 통해 통·번역 기능을 사용해왔지만 번거롭고 제대로 통·번역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로 'AI 통·번역 기능'이 실제 유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안성희 위원)	격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유튜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작하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에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타 매체에서 코로나19 이후 헌혈 급감으로 소아나 난치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액제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위중 환자들이 원정 진료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보다 2배 이상 비싼 혈장을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헌혈을 통한 혈액 수급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심층취재 및 기획 등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안성희 위원)	저희도 이제 창사 10년이 넘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 흐름만 쫓아가지 않고 저희가 조금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 문제도 적십자사와 저희가 한번 공동 기획을 하든가 해서 캠페인으로 다뤄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보도	경제·산업 관련 보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도 패턴을 좀 살펴보니 부동산, 주가 동향,	산업 뉴스가 좀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제부가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거시경제 정책 위주로 보도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정부 발표 정도의 내용들이 단신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면 저출산 영향이라거나 산업계나 기업들 현안에 대해서 다뤄볼 만한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여건이 아니라 해도 경제·산업뉴스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헌 위원)	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사도 적고요. 금융 기사도 적습니다. 산업 쪽을 좀 다루는 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소비자하고 관련된 유통 쪽이라든가 이런 쪽만 치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경제 부와는 별도로 산업부를 신설해서 재계 특히 산업 분야 뉴스를 많이 다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니, 최근에는 경제 카테고리에 의대 증원 관련 보도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20여개 정도의 뉴스가 노출되는데, 제가 살펴본 날에는 절반 이상이 해당뉴스였습니다. 평소에 경제·산업 관련 뉴스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경제뉴스 찾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불편감을 줄 소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 이슈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이상헌 위원)	의료 분야가 경제 카테고리의 홈페이지에 배치가 돼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의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공급자 편의적인 발상인 거죠. 저희 경제부에서 의료 분야를 다룬다고 해서 의료 콘텐츠를 경제 부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의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보도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니, 최근에는 경제 카테고리에 의대 증원 관련 보도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20여개 정도의 뉴스가 노출되는데, 제가 살펴본 날에는 절반 이상이 해당뉴스였습니다. 평소에 경제·산업 관련 뉴스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경제뉴스 찾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불편감을 줄 소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 이슈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	의료 분야가 경제 카테고리의 홈페이지에 배치가 돼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의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공급자 편의적인 발상인 거죠. 저희 경제부에서 의료 분야를 다룬다고 해서 의료 콘텐츠를 경제 부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의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서 가능하다면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이상헌 위원)				
보도	소비자심리지수, 두 달 연속 '낙관' 유지(송고시간 2024-02-20 08:21:30), 27초 분량의 짧은 내용이었는데, 남성 앵커의 작은 발음 실수가 있었는데요. "...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인 점임을 낙관점임을" 자막실수 못지않게 계속 유의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이상헌 위원)	앵커들이 좀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유의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는 몇 년 동안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 아이들 행복 지수, 코로나 속 아동권리, 어린이가 투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꾸준히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사고를 전하는 여타 방송사의 뉴스와 비교했을 때 연합뉴스TV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점은 '언론의 공영성'이란 측면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와 영역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잘 전해줄 수 있는 보도전문매체로서 지금과 같이 충실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이성우 위원)	아동을 비롯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		